

펀드수익 고공행진 ‘金테크 열풍’... “꾸준히 담을만 해”

금값 고공행진에 현물투자 부담
상장지수 펀드 상품에 ‘몽칫돈’
뉴욕 선물가격 온스당 2932.60

이달 현물ETF 수익률 20% 뛰기도
금 거래소 일일 거래액 1000억 넘어

직장인 이용현(가명·46) 씨는 연초 성과
급으로 생긴 여유돈 2000만 원으로 금 투
자를 계획 중이다. 일반 주식에 돈을 넣자
니 불안하고, 트럼프 리스크에 당분간 글
로벌 시장도 뒤숭숭할 것으로 판단해서
다. 이씨는 “최근 금값이 너무 올라 현물투
자는 부담스럽다. 대신 금 상장지수펀드
(ETF)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값이 트로이온스(약
31.1g)당 3000달러에 달하면서 상장지
수펀드(ETF) 등 금 가격이 연동한 투자
상품에 몽칫돈이 몰리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업거래소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스1

(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
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06%
(1.80달러) 내린 온스당 2932.60달러
(약 425만원)에 마감했다. 전날에는 온
스당 2934.4달러(약 426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약
421만원)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투자자들의 금 투자 열기에 국내 유
일의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A
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11일 기준 전년 동기 6.3배 수준인 9619
억원으로 불어났다. 수익률은 이달 들어

19.13% 뛰었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
속되는 가운데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며 “포트폴리오 내 자산배
분 관점에서 꾸준히 담어갈 만한 상품”
이라고 설명했다.

환헤지 상품인 ‘KODEX 골드선물
(H)’과 ‘TIGER 골드선물(H)’ ETF도
올해 들어 각각 9.93%, 9.49% 상승했
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6.2%)을
웃돈다.

KRX 금 거래소 일일 거래대금도 6일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지난해
말 금값이 ‘숨고르기’를 거쳤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는 유
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
협회(WGC)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톤

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금값이 조만간 3000달러를 넘어
설 것이라는 예상도 줄을 잇는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
통령의 불규칙한 관세 결정에 따른 불
확실성이 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 심리
를 자극했다”며 “지난 2월 3일과 4일 양
일간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ET
F는 21개(미국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형 제외)뿐인데, 이 중 11개가 금(8개)·
은(3개) 테마 ETF였다. 안전자산 대표
격인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라고 분석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12월까지 약 50bp까지 축소된 기준금
리 인하 폭 전망은 귀금속 섹터 성과에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된다”며 “실질금
리 급등을 초래하는 일시적, 또는 예상
밖 경기침체 쇼크가 없는 한 금과 은 가
격 동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통상임금 확대’ 유통업계, 4분기 실적 타격

롯데쇼핑 작년 영업이익 6.9% ↓ 4731억
일회성 비용 등 제외하면 5.7% 증가
이마트 “희망퇴직 보상금 등 제외면
영업익 전년보다 증가 2603억 달성”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유통업계의 지난해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4분기 추가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
향이 컸다.

◆ 대형마트에 더 큰 타격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비용 부담이 4분기 실적
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주요 기업들
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이 47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다만,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부담금 등
일회성 비용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
면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3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역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았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1억원을 기록
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제 영업이익은 2603억원을 달성했
으나, 통상임금 판결 부담금(1529억 원)과
희망퇴직 보상금(603억원) 등 총 2132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줄어들었
다. 그럼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
비 940억원 늘며 흑자로 돌아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통상임금 부담금
과 희망퇴직 보상금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72억원 증가한 2603억원”을 달성했다
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영
업이익 28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
화점 리뉴얼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과 함
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비용 증가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비용 부담은
대형마트 업계에서 더 크게 작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
데백화점의 통상임금 부담금은 192억
원인 반면, 마트·슈퍼 등 국내 그로서리
(식료품) 사업 부문의 부담금은 222억
원으로 더 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업태 특
성상 직원 수가 많고, 긴 영업시간과 휴
일 영업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과 휴일

수당 부담이 크다”며 “이번 통상임금 판
결로 인해 이러한 부담이 퇴직충당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
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며 기존 ‘고
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기존에는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려면 ‘정기성·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
지만, 이번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
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에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고, 퇴직금 산정 기준 역
시 높아졌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퇴
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
는데,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 부
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
업들은 향후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
리 회계상 부채로 반영해야 했고, 그 영
향이 4분기 실적에 일시적으로 반영되
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wotjs4187@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소규모 면허 허용”

최상목 대행, 양조장 창업 촉진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증류주 소주를 비롯해 코냐,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득
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 약
주, 청주, 과실주, 맥주)에 한해 소규모
양조 면허가 발급돼 왔다. 정부는 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
는 계획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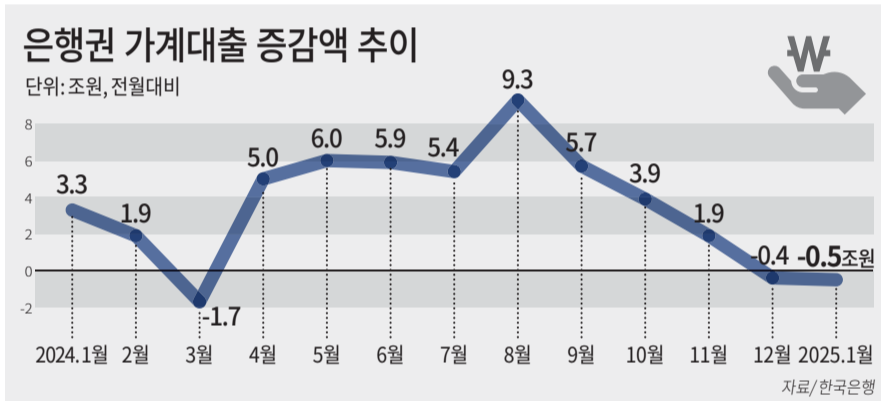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
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
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하고, 주류제조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
자로 한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
표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전통
주가 와인·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
극 뒷받침하겠다”며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겠
다”고 말했다.

특히 양조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
고, 성장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조면허
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탁주·약
주·청주, 맥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되는 소규모 제조면허를 소주, 위
스키, 브랜디(코냐·아르나막) 등 증류
주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동산 침체... 10개월 만에 가계대출 ‘뚝’

이달 은행·비은행권서 9000억 ↓
“연초·설 상여금으로 대출 갚아”

분양 물량도 같은 기간 2만5000호에서
2만호로 줄었다.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감소세
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줄
어든 영향이다. 연초 상여금과 설 명절
상여금까지 더해지면서 신용대출을 포
함한 기타 대출도 2조원가량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12일 발표
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은행
권과 비은행권(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은 총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감소
세로 전환했다.

◆ 신용카드 포함 기타 대출 2.1조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가계대
출 잔액은 11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
다. 증가폭은 전달(8000억원)보다 늘어
난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점이던
지난해 8월 8조2000억원의 5분의 1 수
준이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관련 대
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전
반적으로 하락 전환했고, 거래량도 줄
고 있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둔화 흐
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만8000호까지
거래됐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월 3
만1000호, 12월 2만7000호로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 은행권-비은행권 대출 쏠림 줄었다
특히 1월에는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쏠리던 가
계대출도 줄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감
소했다. 한 달 전 2조4000억원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 중 상호금융권은 신협(+1000억
원)과 수협(+1000억원)이 증가했지만
농협(-1000억원)과 새마을금고(-3000
억원)가 감소하며 2000억원 줄었다. 저
축은행은 한 달 전과 비교해 2000억원
늘었고, 보험사는 5000억원 감소했다.

◆ 기업, 설 명절 자금 수요에 7.8조 증가

지난달 기업대출은 계절적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은행 기업 대출 잔액은 1322조9000
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7조8000억
원 늘었다.

부실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 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은 280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42조3000억
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인이 한 달 새 2조1000억원 늘었지만 개
인사업자대출이 3000억 원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